김철우 군수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보성' 만들기 주력"

내년도 예산 6천666억 편성…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점
복지·농업·문화·경제·지역개발 등 5대 군정 목표 제시

김철우 보성군수가 복지, 농업, 문화, 경제, 지역개발 등 5대 목표로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보성을 만드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철우 군수가 제306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및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2025년을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해로 여기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위해 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보성군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상 ▲산불 예방 및 대응 평가 우수상 수상 등 우수한 행정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김철우 군수가 지난 25일 열린 제306회 보성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보성군 제공〉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소외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각 분야의 핵심과제로 ▲보성군 출생 기본수당 신설 ▲맞춤형 청년정책 확대 ▲보성600사업 전 행정분야 확대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 ▲보성군 낙지목장 및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제1회 보성 열선루 축제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 ▲어촌 정주어항 보강사업 등을 언급했다.

보성군은 일반회계 5천713억원, 특별회계 953억원 등 총 6천666억원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많은 1천830억원(27.45%)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천472억 원(22.09%) ▲환경 분야 1천76억원(16.15%)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 432억원(6.48%) ▲지역개발 교통사업 분야 415억원(6.23%) ▲문화 및 관광 분야 307억원(4.60%) 등으로 편성했다.

김철우 군수는 "군정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주요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중단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고흥군, 2025년산 '김' 본격 출하

전년比 최고 단가 50%↑ 형성…郡, 병해 예방 등 행정지원 지속

고흥군은 27일 "지난 25일 도화면 구암위판장에서 2025년산 물김 위판을 시작으로 올해 고흥 김의 본격적인 생산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도 이상기후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보다 분망과 채취가 늦어져 물김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난해보다 위판량·위판 금액이 상향 거래되면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위판가는 120㎏ 기준 포대당 18만7천900원에서 31만1천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최고 단가가 약 5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다. 김 양식 어업인을 격려하고 고소득을 기원하기 위해 2025년산 물김 위판장 개장식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산 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고흥산 김이 될 수 있도록 수출 판로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김 생산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김 생산 시기 동안 병해 예방, 김 양식 시설 관리,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철거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고흥군이 2025년산 물김 위판을 시작한 가운데 도화면 구암위판장에서 채취된 물김이 양식장 작업선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광양시, 내년도 예산안 1조1천456억 편성

전년比 4.3%↑…관광·농업 분야 등 중점

광양시가 지역발전사업과 시민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으로 1조1천456억원을 편성해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77억원(4.3%)이 늘었다. 일반회계는 9천633억원으로 615억원(6.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천822억원으로 138억원(7.05%) 감소했다. 광양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정했다.

시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 완료 가능한 SOC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 우선 투자,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시책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광·농업 분야 등 성과 창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반영 사업으로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56억원 ▲옥곡면사무소, 진원면사무소 건립 각각 16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직업교육장) 신축 17억원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28억원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10억원 등이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사업, 시 발전을 견인할 지역발전사업에 우선 투자해 민선 8기 3년 차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2025년도 예산안은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무궁화공원, 道 친환경디자인 '최우수상'

친환경·창의·조화성 등 평가서 높은 점수

장성 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사진)이 전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은 도내 친환경공간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친환경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장성무궁화공원은 9천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2천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된 명소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다. 특히 친환경성, 조화성, 창의성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원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무궁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며, 경관폭포, 암석정원, 유아숲체험원 등의 시설로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공원 중심부에 무궁화 전망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공원 특성상 장성의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달·토끼' 화순 개미산전망대 포토존 조성

3층 규모…꽃강길 음악분수와 시너지 효과 새 랜드마크 기대

화순군은 27일 "화순 개미산전망대에 새로운 포토존(사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개미산전망대는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인접한 개미산 정상에 건설된 3층 규모의 전망대다. 2023년 7월 착공해 12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6월28일 민선 8기 2주년 기념식과 함께 준공식을 치렀다.

이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와 시너지를 이뤄 휴일에는 2천명 이상의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버스킹 공연, 음악분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화순군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개미산전망대 포토존은 대형 달 구조물, 구름, 별, 그리고 친근한 토끼 조형물로 꾸려졌다.

탁 트인 전망대에서 화순읍 전경을 배경으로 주간에는 푸르른 하늘을, 야간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도 좋아할 조형물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순 개미산전망대가 여유를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화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플랜트 건설노동자 건강검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중복 검진으로 인한 잦은 채혈·방사선 노출 등 현행 문제점 분석

여수시는 27일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 배치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정경삼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플랜트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배치 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산단 내 사업장별 유해인자가 다양해 노동자들이 중복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잦고 추가 검진 비용, 잦은 채혈, 방사선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노동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지부장이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배치 전 건강검진 개선부터', 이정호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사무국장이 '행정기관의 주도적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건설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등록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패키지 항목 구성' 등의 개선책을 제안하며, 울산지역에서 연 최대 2회 검진 사업을 시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플랜트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여수지역에서도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시가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 배치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담양군의회, 주요 현안 군정질문 실시

청년 전담부서 신설·병원 동행 서비스 등 약자 지원 확대

담양군의회가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27일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총 3명의 의원이 나서 7건의 현안을 질문했다.

박은서 부의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대상 확대 방안 등 2건에 대해 질문하며,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박준엽 의원은 대나무와 가사문학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도서관 설립'을 통한 경제활성화, 화재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수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화재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철원 의장은 서면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영조물 보험 등 공공 건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공공 토지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담양시장 및 다미담 예술구 활성화 대책 등 3건을 질의했다.

정철원 의장은 "지역 현안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질문에 나섰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즉시 실행에 옮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